

2018년 8월 2일, 제주시 도남동 강인생 씨 자녀댁, 이효순 조사.

강인생(여, 1928년생,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출생, 제주4·3사건을 피해 애월읍 객지리와 서울 등지에서 잠시 살다가 애월읍 어음리에 정착하여 50여 년째 살고 있다.

- 줄거리: 일곱 아들을 둔 남선비가 육지에 돈 벌러 갔다가 노일저대 꼬임에 빠져서 노일저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노일저대가 아들들을 모두 죽이려고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점을 치니까 일곱아들의 간을 먹으면 나을 거라고 하자 막내아들이 형들의 간을 갖고 오겠다고 했다. 마침 산돼지 새끼의 간을 가져갔는데 노일저대는 먹지 않고 이불 밑에 숨겨 두는 것을 보고 막내아들은 흥계를 알렸다. 노일저대는 변소 디딜팡에 목매어 죽었고 남선비는 문전에 머리 다쳐서 죽었고 본부인은 조왕할망이 되었다.

[제보자] 남선비가 아들을 일곱 성제 난. 일곱 성제 나난 글 배우저. 먹 일곱 동 사 오마, 책 일곱 동 사 오마. 옛날엔 막 그냥 곡석을 막 전배독선 싣경 육지 나간. 아이들 글 배우젠. 노일저대가 낮앙 오꼴 흘려 불언. 흘려 강 전배독선 헤난 거 다 먹고 문딱 먹영. 문딱 먹어 노난 갈 디 엇주게. 흘 수가 엇어. 흘 수가 엇언 다 먹영 전배독선 헤난 거 다 이제 먹고. 이제 먹어 부난 먹을 게 편척 엇어. 어떠난 놈으 집이 강 불 씌명 헤도 불 엇이난 체죽을 먹으명 살앗젠. 체죽을 먹으명 경허명 살앗는디. 노일저대가 이제 다 먹어동 이녁이 낮앙 하르방 고향에 오라고 네 살젠 허영 오란.

하르방 고향에 오난 할망은 잇인디 이녁이 주인인 책허영 오랑 막 내노라 큰 소리치명 하르방은 존존이 오난 노일저대 달려오난 허고 난 살앗는디 먹으명 살앗는디 노일저대가 아들 일곱 개 다 죽여 불젠. 다 이녁 츠지허영 살젠. 이젠 허는디

[조사자] 큰각시는 어떻허고마씨?

[제보자] 오랑 스몫 활개청 살아 부난 못헌 거주. 하르방이영 오랑. 경헤 부난 큰각시는 어떻사 헛인지. 아들 죽여 뒤그네 이녁만 살젠 ‘아이고, 배 아프다, 배 아프다.’ 누워둬어 이제 ‘무신 거 가정 오라.’ 허고. 이제 경허영 누워둬어 아들 어디 강

들으난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으민 좋겐. 하르방신디 들으난 하르방은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이젠 헛주게.

애 먹겐 허영. 간 맥이젠. 아이고, 누워둬어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어 먹어사 좋겐. 남선비 하르방은 그추룩허영 노일저대 살령 살아 보젠 허난, 하루는 아방 이 저 칼을 송송 가는 거라. 아들 애 내어 노일저대 맥이젠. 경허난 젤 족은아들은 호꿈 옥으난

“그거 나 줍서. 나가 성님네 몬딱 허영 맥이건 아버지랑 날 허영 맥입서.”

경허영 칼 주난 족은아들은 어디 강 도새기 간 일곱 개 허영 어멍 맥엇주게.

“이거 성님네 간이난 먹읍서.”

먹지도 안허곡 입에 불르멍 자리 아래 묻어 불언. 먹은 걸로 허젠 입에 불르멍.

“아이고, 애 먹으난 시원허다. 하나만 더 먹엇이민 좋으켜.”

족은거까지 먹젠.

“하나만 더 먹엇이민 좋으켜.”

허난

“그건 경험서.”

헤동 말쎄엔

“어머니, 나 저 이제 나가 마지막이난 자리나 치와 똥 죽으쿠다.”

허난 자리 치우쿠덴 허영 확 걷영 보난 여섯 개가 시랑시랑. 먹음이랑 말앙 거 기 놔 둔 거라.

[조사자] 아방도 봤구나예?

[제보자] 몬딱 그디 봤주게. 경허난 이제

“아이고, 이거 뵈서. 이거 뵈서.”

허멍 딱 허난, 아방은 이제 와랑와랑 톤단 문전에 대멩이 찌영 죽고, 어멍은 이제 조왕할망으로 갓젠 그때 골안게.

[조사자] 큰할망은?

[제보자] 조왕할망으로 가고, 노일저대는 두들팡 안에 야게 데와정 죽고. 그런 말만 들언.

- 핵심어: 남선비, 전배독선, 노일저대, 족은아들(막내아들), 도새기(돼지), 애(간), 두들팡(디딜팡), 조왕할망(부엌신), 일곱 성제(일곱 형제), 성님(형님), 아방(아버지)